

중학생의 부모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및 자아효능감의 관계

조결자¹ · 이명희²

¹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²신성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s, Stress, Stress-coping and Self-efficacy of Middle School Students

Cho, Kyoul-Ja¹ · Lee, Myung-Hee²

¹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Seoul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hin Sung University, Dangjin,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rvey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 stress, stress-coping, and self-efficacy in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262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study.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The mean score for parenting attitude was 3.40 (5 scale), stress 2.36 (5 scale), stress-coping 2.12 (4 scale) and self-efficacy 2.46 (4 scale). There were a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rearing attitude and self-efficacy ($r=.141$). There were a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rearing attitude and stress ($r=-.284$). **Conclusion:** In order to promote self-efficacy and to decrease stress in middle school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upporting intervention to develop parental rearing attitude.

Key words: Rearing, Stress, Stress-coping, Self-efficacy

서론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인간의 성장·발달 과정상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내적 갈등을 많이 겪는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의 자기중심적 경향과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은 효율적인 사회 상호작용과 바람직한 인간관계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며,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최초의 가장 중요한 교육자이

다. 부모 각자가 갖고 있는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과 양육실제 등은 자녀의 인성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데(Oh, 2003) 이는 부모의 과거 경험이나 사회 문화적 배경, 또는 사회계층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와 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주고 자녀의 지적, 정의적, 성격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Kim, 2008).

Yoo (1989)는 양육이란 아동이 때맞추어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심리적·물리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고, 양육태도를 결정짓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부모가 아동에

주요어 : 양육,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자아효능감

*본 연구는 경희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한 결과임.

*This study was supported by Kyung Hee University Research Year.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Myung-Hee

Department of Nursing, Shinsung University, 49 Deokma-ri, Jeongmi-myeon, Dangjin 343-861, Korea

Tel: 82-41-350-1346 Fax: 82-41-350-1345 E-mail: mhlee44@shinsung.ac.kr

투고일: 2010년 1월 14일 1차수정: 2010년 2월 8일 2차수정: 2010년 2월 18일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31일

게 갖는 기대수준이나 포부수준이라 하였다. 따라서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의 성장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태도로서 자녀에 의하여 지각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반응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 문제행동들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고, 과잉간섭, 과잉기대, 방임, 비밀관성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문제 행동들과 정적상관이 있다고 하였으며(Sohn et al., 2001), 지나치게 억압적, 거부적이며 사랑이 없는 처벌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행동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Jung, 2002).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 중심적이며 민주적이며 애정적·합리적일수록 학교적응력이 증가되었고(Jung, 2001), 자녀의 성취동기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Lee, 2003).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행동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제와 과잉행동이라고 지각할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하였고(Park, 2003), 온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적극적, 사회 지지적 추구 대처행동을 많이 선택하였으며, 거부적 양육태도라고 지각할수록 공격적, 소극적, 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선택하였고(Kim, 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Kim, 2008).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과 사회화의 발달과정에서 매우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가정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 가정환경, 친구, 학업, 교사 및 학교, 신체 및 성격에 따른 스트레스 지각 정도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아의 기반을 형성하면서 자아 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Bandura (1986)에 의하면 자아효능감은 개인의 유능함에 대한 자기평가나, 문화적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가치가 부여된 특성의 소유에 대한 자기평가를 통해 획득한다고 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자신의 자아 효능감을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자아 효능감은 현재 진행 중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인간이 선택해야 하거나 도전을 해야 할 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등에 강한 영향을 준다고 하면서 아동의 성격형성 과정에 아동과 부모와의 초기의 대인관계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학생은 자아 효능감이 어느 정도이며, 그들이 인지하는 부모 양육태도에 따라 자아 효능감은 어느 정도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주요 생활사건이 아닌 반복적인 일상생

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는데, 그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주요인은 가족관계 특히 부모와의 관계로 보고 있으며, 청소년의 반항은 학업실패, 직업선택의 어려움, 권위주의적 양육방식, 극도로 제한적이거나 허용적인 태도, 부모의 불화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학생들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자아 효능감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개인과 가정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자아 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의 부모 양육태도를 파악한다.
- 둘째,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 셋째,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파악한다.
- 넷째, 대상자의 자아 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 다섯째, 대상자가 인지한 부모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자아 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학생의 부모양육행동과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자아 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1개교를 편의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학교의 1학년 17개 학급 중 4개 학급을, 2학년 14개 학급 중 2개 학급의 2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학년은 진학을 위한 시험 준비 중에 있었으므로 제외시켰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6년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였고,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중학교를 방문하여 보건교사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여 담임교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학문적 발전을 위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동의를 얻은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지 내용 및 기재 요령을 설명하고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

으며,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 8부를 제외하고 분석에는 262부를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

부모 양육태도

Kim (1984)이 개발하고 Lee (2006)가 요인분석을 통해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문항분석을 통해 문항과 전체 문항 간의 상관관계수가 .30 이상을 확인한 후 측정하였다. 도구는 자율영역(4문항), 관심영역(4문항), 애정영역(2문항)의 3개 영역을 포함하는 10개 문항,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양육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88$,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2$ 이었다.

스트레스

Park (2001)이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문항분석을 통해 문항과 전체 문항 간의 상관관계수가 .30 이상을 확인한 후 측정하였다. 도구는 부모영역(14문항), 가정환경영역(5문항), 친구영역(6문항), 학업영역(7문항), 교사 및 학교영역(10문항), 신체 및 성격영역(5문항)의 6개영역을 포함하는 총 47문항, 5점 척도로서 '전혀 받지 않는다' 1점에서부터 '매우 심하게 받는다' 5점까지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8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4$ 이었다.

스트레스 대처

Min과 Yoo (1998)가 개발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대처 행동 척도를 Shin (2000)이 보완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자가 문항분석을 통해 문항과 전체 문항 간의 상관관계수가 .30 이상을 확인한 후 측정하였다. 스트레스의 대처행동중 적극적 대처행동은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 행동적 반응이며, 소극적 대처행동은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 문제로부터 유발된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거나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 행동적 반응이고, 회피적 대처행동은 스트레스 문제를 유보, 부정, 체념, 수용하거나 또는 문제 자체를 생각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을 회피하려는 인지 행동적 반응이다. 그리고 공격적 대처행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신체적, 언어적 공격을 하기위한 인지 행동적 반응이고,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행동은 문제해결이나 정서 위안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동이다(Shin, 2000). 도구는 적극적 대처행동 영역(5문항), 소극적 대처행동

영역(5문항), 공격적 대처행동 영역(5문항), 회피적 대처행동 영역(5문항), 사회적지지 추구 적 대처행동 영역(5문항)의 5영역을 포함하는 총 25문항, 4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75$,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77$ 이었다.

자아 효능감

Kim과 Cha (1996)가 개발하고, Kim (1997)이 수정한 일반적 자아 효능감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는 안정적인 개인차 변수로서의 일반적 자아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본 도구는 문항분석을 통해 문항과 전체 문항 간의 상관관계수가 .30 이상을 확인한 후 측정하였다. 도구는 자신감(7문항), 자기조절(12문항), 과제 난이도 선호(5문항)의 3개 영역을 포함하는 총 24문항, 4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83$,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1$ 이었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3.0 Version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부모 양육태도,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및 자아효능감은 빈도와 백분율 혹은 평균을 구하였다. 대상자의 부모 양육태도,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자아 효능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를 구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성별은 여자 55.7% (146명), 남자 44.3% (116명)이고, 학년은 1학년 74.0% (194명), 2학년 26.0% (68명)이었다. 종교를 가진 경우가 59.2% (155명)이고, 갖지 않은 경우가 40.8% (107명)이었으며, 가족 수는 4-5명이 79.0% (207명)로 가장 많았고, 가족의 동거형태는 부모형제와 동거가 77.5% (225명)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 연령은 40-49세가 82.8% (217명), 어머니 연령은 40-49세가 77.5% (203명)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 학력은 대졸 이상 50.8% (133명)로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였고, 어머니 학력은 고졸 60.7% (159명)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 직업은 '있는 경우' (96.9%)가 대부분이었고, 어머니 직업은 '있는 경우'가 67.2%로 가장 많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6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16 (44.3)
	Female	146 (55.7)
Grade	7th grade	194 (74.0)
	8th grade	68 (26.0)
Religion	Have	155 (59.2)
	None	107 (40.8)
Number of family (persons)	≤3	33 (12.6)
	4-5	207 (79.0)
	≥6	22 (8.4)
Family type	Nuclear	203 (77.5)
	A large family with one's mother's side	12 (4.6)
	A large family with one's father's side	47 (17.9)
Age of father (yr)	≤39	18 (6.9)
	40-49	217 (82.8)
	≥50	27 (10.3)
Age of mother (yr)	≤39	53 (20.2)
	40-49	203 (77.5)
	≥50	6 (2.3)
Level of father's education	≥ University	133 (50.8)
	High school	120 (45.8)
	Middle school	8 (3.1)
	Elementary school	1 (0.4)
Level of mother's education	≥ University	93 (35.5)
	High school	159 (60.7)
	Middle school	7 (2.7)
	Elementary school	3 (1.1)
Occupation of father	Have	254 (96.9)
	None	8 (3.1)
Occupation of mother	Have	176 (67.2)
	None	86 (32.8)
Economic status	High	20 (7.6)
	Middle	226 (86.3)
	Low	16 (6.1)

다. 경제 상태는 '중'이 86.3% (226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자아 효능감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부모의 양육태도,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자아 효능감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0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3.30점,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3.50점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버지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2.36점으로 보통이하이며, 이를 하위영역별로 보았을 때 학습(3.07)에 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부모영역으로서 어머니(2.65), 아버지(2.5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친구(1.83)에 관한 스트레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는 4점 만점에 평균 2.12점으로 보통정도이며, 이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적극적 대처행동(2.47)을 보통이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다음은 소극적 대처행동(2.19)과 회피적 대처행동(2.19), 공격적 대처행동(1.90),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행동(1.85)의 순으로 사용하였다.

자아 효능감은 4점 만점에 평균 2.46점으로 보통 이상이며, 이를 하위영역별로 보았을 때 과제난이도 선호(2.51), 자아조절 효능감(2.50), 자신감(2.36)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및 자아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자아 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스트레스는 낮았고($r = -.284, p = .001$), 자아 효능감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효능감은 높았다($r = .141, p = .023$). 그러나 상관관계가 높은 상태는 아니었다. 반면,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 = .009, p = .887$).

논 의

청소년기는 부모에게 의존적이던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어느 시기보다도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인 변화를 많이 겪게 되는데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청소년들을 혼란스럽게 하므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는 급변하고 복잡, 다양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로서 발달단계에 따라 스트레스의 종류, 정도, 대처양식은 다르나 모든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다.

본 연구 결과 중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스트레스 정도는 보통 이하이나 학업영역에 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부모영역으로 어머니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버지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더 높았다. 또한 본 연구 결과 부모양육태도와 스트레스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율, 관심, 애정영역의 전반적인 면에서 5점 만점에 3.24점내지 3.61점으로 보통이상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어머니의 관심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음을 보여주었으며, 아버지의 관심과 애정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과도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즉 어머니의 관심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자녀가 이를 좋은 양육태도로 지각하지

Table 2. Degree of Parental Rearing Attitude, Stress, Stress-coping, and Self-efficacy (N=262)

Variables	Categories	M±SD	Range			
			Min	Max		
Rearing attitude	Father	Autonomy	3.38±0.91	1	5	
		Attention	3.24±0.89	1	5	
		Affection	3.24±1.01	1	5	
	Total		3.30±0.82	1	5	
	Mother	Autonomy	3.47±0.87	1	5	
		Attention	3.61±0.81	1	5	
		Affection	3.35±1.02	1	5	
	Total		3.50±0.78	1	5	
	Total		3.40±0.73	1	5	
	Stress	Parents	Father	2.51±0.78	1	5
Mother			2.65±0.75	1	5	
Home environment			2.01±0.85	1	5	
Friends			1.83±0.83	1	5	
Studies			3.07±0.99	1	5	
Teacher and School			2.11±0.73	1	5	
Physical and Personality			2.26±0.94	1	5	
Total			2.36±0.62	1	5	
Stress-coping		Active coping behaviors		2.47±0.72	1	4
		Passive coping behaviors		2.19±0.63	1	4
	Aggressive coping behaviors		1.90±0.61	1	4	
	Avoidant coping behaviors		2.19±0.59	1	4	
	Social support seeking coping behaviors		1.85±0.57	1	4	
	Total		2.12±0.39	1	4	
Self-efficacy	Self-confidence		2.36±0.59	1	4	
	Self-control efficacy		2.50±0.53	1	4	
	Preferred task difficulty		2.51±0.44	1	4	
	Total		2.46±0.36	1	4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Parental Rearing attitude and Related variables (N=262)

	Stress	Stress-coping	Self-efficacy
Rearing attitude	-.284 (.001*)	.009 (.887)	.141 (.023*)

*p<.05.

만 결국 그들에게는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도 볼 수 있다. 대상자들은 아버지의 양육태도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더욱 애정적이고, 관심이 많으며, 자율성을 허용한다고 보았으며,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으로 자녀의 문제나 부모-자녀 간의 문제가 있을 때에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부모의 태도가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할 만큼의 관심은 매우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관심이 지나친 관심이며 잘못된 양육태도인지에 대한 것은 밝혀지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Noh (2009)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Lim (1988)의 도구를 이용한 애정적, 자율적, 성취, 합리적 차원의 부모양육태도에서 10점 만점에 6.14에서 7.57

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이고 있었고, Lee (2003)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Song (1994)의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 도구를 이용하여 수용적, 거부적 영역의 부모양육태도를 측정된 결과 5점 만점에 3.49-4.24로 중간 이상의 수용적인 점수를 보이고 있어 측정하는 도구와 대상자에 따라서 차이는 있었지만 부모의 양육태도는 보통이상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청소년 시기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외부의 사소한 자극에도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며. 더욱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는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 대한 해결과제뿐만 아니라 중학생의 경우, 학업성적문제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Lee, 1995)은 본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활 스트레스 조사연구에서 대인관계 영역보다는 당면과제 영역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요인은 학업문제로 나타나(Jang, 2004)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하였다.

Jang (2000)은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이 가장 높게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영역별로 분류하였을 때, 교사 및 학교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학업영역, 부모영역, 친구영역, 신체 및 성격영역, 가정환경영역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영역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부모영역, 신체 및 성격영역, 교사 및 학교영역, 가정환경영역, 친구영역의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학령기와 청소년기의 생활사의 차이라고 생각하여, 학령기는 사회생활의 첫 경험으로 교사와 학교에 대한 비중이 더 커서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으나 청소년기의 중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라는 사회는 적응이 되었고 타인과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대학 진학 등 학업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스트레스로 인한 반항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자율적인 면을 높이는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필요하다. 부모양육태도의 유형은 자녀의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자녀와 부모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심리적 가정환경은 자녀의 행동 및 인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자율과 애정, 관심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내재요인 중에서 가족관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Kim (199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통제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의 스트레스의 부모영역 중 자녀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해 아버지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과 비슷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 결과 대상자들이 스트레스에 대하여 적극적 대처행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소극적 혹은 회피적 대처행동을 다음으로 많이 하고 있었고,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행동은 가장 적게 사용하였다. 그리고 부모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행동과는 상관이 없었다. Lee (2005)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유형에 따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문제 중심적 혹은 적극적, 사회적 지지적 대처방식과 같은 긍정적인 대처방식을 선택하고,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감정적, 회피적인 대처방식 혹은 소극적, 공격적 대처방식과 같은 부정적 대처방식을 사용하여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자기를 위로하거나 저항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양육태도 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상관관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연구와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양육태도가 보통 이상으로 긍정적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의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방식과 부정적인 면의 공격적 대처방식을 가장 낮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다르다고 본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스트레

스 대처행동 간의 상관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단순한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는 의미 있는 상관성은 볼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와 상관성이 있는 변수는 스트레스 이외에 자아 효능감이었는데 자아효능감은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자신감 내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정도는 그 능력을 요하는 행위를 할 때 얼마나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효능성에 대한 판단을 말하며, 이러한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지적 판단과정을 통해 성립되고 정서적 반응으로 표출된다(Bandura, 1993).

자아 효능감은 목표의 성취여부에 따라 변화하고 자아 효능감의 증진이나 저하는 불안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 효능감 간의 상관성은 정적인 관계가 있었지만 상관정도는 높지 않았다. 이는 Lim (2001)의 연구에서 부모의 지원,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 지향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 효능감 형성,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고, 양육태도가 좋을수록 자아 효능감이 높았음(Moon & Han, 2005)을 보고한 연구 결과와 동일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대상의 Lee (2006)연구결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아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였다는 결과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상관성이 높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대상자 수의 문제이거나 자아개념이 아직 확고하게 형성되지 않아 자아 효능감에 대한 판단이 낮은 저학년의 학생 때문인지를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기가치의 평가절하는 자아 효능감의 저하를 초래함으로써 학교생활의 적응은 점점 더 어렵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어 학습된 무기력을 감소하고 자아 효능감을 높여줄 필요성이 있으며,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부모양육행동 내지 학교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자아 효능감은 성공경험,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및 생리적 상태와 정신적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Bandura, 1993) 부모의 영향과 학교교육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자녀의 스트레스를 적게 하거나 자아 효능감을 높이기 위하여 부모가 양육태도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행하도록 하고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양육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교 1, 2학년생 262명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행동과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및 자아효능감의 정도와 부모양육태도와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서 빈도와 백분율, 평균점수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둘째, 스트레스 정도는 보통 이하이었으나 학업과 부모영역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었다.

셋째,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가장 많이 하였고, 사회적지지 추구대처행동은 가장 적게 하였으며, 자아효능감은 보통 이상으로 높았다.

넷째,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간에 부적의 상관관계를 보여,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스트레스가 낮았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 효능감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 효능감이 높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행동과는 관계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의 의의는 부모의 자율, 관심, 애정을 포함한 양육태도를 긍정적인 면으로 높여서 중학생 자녀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자아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행동들과는 상관이 없고,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부족함을 확인하게 되었으므로 대처행동에 관한 부모의 관심과 양육방법 및 자녀의 행동수정 등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반복연구가 요구되며, 중학생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스트레스 대처방안과 자아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연구들을 제언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ill.
-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 117-148.
- Jang, B. Y. (200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level and problem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 Jang, I. Y. (2004). *Factors and countermeasures for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 related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won.
- Jung, E. J. (2001). *Relationship among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 self-concept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 Jung, H. J. (2002). *Effect research that parents' rearing attitudes gets in adolescents character form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 Kim, A. Y. (1997). The study on the variables of tolerance to academic failure. *Th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1(2), 1-19.
- Kim, A. Y., & Cha, J. E. (1996). Self-efficacy and measures. Society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winter competition announced academic result. *Th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1-64.
- Kim, G. J. (1984). *The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s and perceive parental attitudes on self-concept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Jungang University, Seoul.
- Kim, H. Y. (1999). *A study of the influences of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the early youth on their psychosocial maladapt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M. J. (2003). *Relationship among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children, self-efficacy, and stress cop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S. O. (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rearing attitudes and children's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 Lee, E. H.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a mother's child rearing attitude, social supports, and a child's self-effici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Lee, E. Y. (2005). *A study on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stress and stress coping behaviors by the influence of maternal rearing attitudes and the existence of a brot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ju.
- Lee, H. J. (2003).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raising attitude and career maturity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 Lee, K. H. (1995). *A study on main stress of adolesc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oung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Y. W. (2003).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achievement motiv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unkook University, Seoul.
- Lim, M. S. (2001).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parent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o child stress: For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 Lim, S. H. (1988).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 children and children's self-concept and socia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Min, H. Y., & Yoo, A. J. (1998). Development of daily hassles coping scale for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7), 83-96.
- Moon, Y. S., & Han, J. S. (2005). Perceived maternal rearing attitude,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in elementary school. *Choshineuihak* 48(11, 12) 119-127.
- Noh, C. S. (2009). *The effect parent's child raising attitude and communication have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ttention deficit and hyperactivity disor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ung University, Busan.
- Oh, J. W. (2003). *A study of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and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Daejeon.
- Park, E. H. (2001). *The RET educational program's effect on the reduction of the irrational beliefs and stresses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osuk University, Wanju.
- Park, J. H. (2003).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ental rearing behavior that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 their anger expression, and stress lev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 Shin, J. S. (2000). *Relationship between bully/victim types and coping with stres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Song, S. H. (1994). *Effects of family type and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on Korean adolescents' ego identity form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Sohn, S. H., Noh, K. S., Huh, M. Y., Jung, H. O., Lee, S. H., & Kim, S. J. (2001). A study of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and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2, 237-244.
- Yoo, A. J. (1989). *Korea's traditional parenting method*.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